

작은 꽃

주요 날짜:

- 2 월 3 일
Soup Kitchen 봉사
- 2 월 6 일
재의 수요일
- 2 월 7 일
구정
- 2 월 10 일
성경모임
- 2 월 22 일
베드로 사도 축일
- 2 월 24 일
월례회

다음쪽:

월례회
성경모임
지구형제회 모임
한 걸음씩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일년의 小回

22 년 간 살았던 북가주의 San Jose 를 뒤로 하고 이곳에 남하한지 어느덧 3 년째 되가는 군요. “Time flies” 라는 구태의연한 표현이 한해의 세밑에서 마음 속에 절절이 각인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년 조금 넘은 (그러나 햇수로 2006 년 11 월, 2007 년, 2008 년 1 월 3 일 하여 3 년째)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로서의 소회를 줄필에 담아 보렵니다. 조금 조금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이 요셉 형제님이 어느날 년즈시 한번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지원해 보라는 권유에 별로 크게 생각지 않고, 뭘하는 곳인지, 누가 있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한번 둘러 본다는 것이 일년이 넘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별세하신 모친께 생전에 한두번 무엇하는 곳이나고 여쭙봐도 그냥 잔잔히 웃으시는 것으로 대답을 하였던 기억입니다. 대부분이 초면인 회원님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행사, 용어 등이 생소한 이질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첫날이었습니다. 40 여년이 넘는 신앙 생활의 여정에서 처음으로 마음 먹어본 신심단체의 join 을 이방인 같은 느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등이 마음 한 군데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downtown 에서의 배식봉사였습니다. 단지 운이 부족한 사람들, 무슨 이유로 현재 의지할 home 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식을 하면서 마음 속으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편히 쉴 physical home 은 있지만 주님이 내 마음안에 자리할 home 이 없는 마음 속의 homeless 인지는 아닐까? 이런 저런 이유로 되지않는 일방적 편견이나 아집으로 주위사람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home 이 없는 정신적 homeless 인지는 아닌지? 그간의 인생여정에서 여러사

고 경하 베드로, 말단 지원자(자칭)

정으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 공부, 월례회등의 조그마한 신심활동을 통하여, 먼저 입회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재속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저희 회원 여러분들, 바쁜 미국 생활에서 나에게 아까운 시간이면 그분들께도 역시 아까운 이 시간을 아무 말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나에게 아까운 금전이면, 그분들도 역시 땀흘려 수고한 아까운 금전을 흔쾌히 희사하시는 자랑스러운 회원님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봅니다. 아주 어렸을 적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Franciscan 수도회의 파란 눈의 수사님들을 기억해봅니다. 60 년대 초의 열악했던 그 때의 한국실정에서 저분들은 오래된 수사복과, 샌들을 신고 다니며 왜 이런곳에서 저런 고생을 하나... 분명히 정신나간 사람들은 아니고 다들 멀쩡한 사람인데... 어릴적에 잠깐 생각한 물음이었는데, 40 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저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그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성시간에 8 백년 전의 말연한 책에 나오는 감이 잘 오지 않던 진짜 사부님이 어릴적에 보았던 저 파란 눈의 수사님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며 감각적으로 이해가 빨랐습니다. 가끔 요셉 형제님께서 e-mail 로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그림과 훌륭한 글들을 잠깐의 break time 에 음미하여 봅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구절 한마디 “인생 그게 그겁디다” 부자라고 네끼니 먹을 수 없고 많이 배웠다고 남들 안하는 이상한 말 하는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가깝다는 배우자 하고도 가끔씩 갈등을 빚는데, 어찌 맘에 맞는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ive
San Diego, CA 92123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ghwan
@yahoo.com

사람들하고만 인생을 지내겠다는 편협하고 일방적인 마음의 굴레를 벗어 버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색했던 hug 식 인사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에 자그마한 이것으로 시작하여, 금년이 다갔을 즈음 좀 더 큰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활동이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 아직 미친한 올챙이 지원자가, 하도 쓰라기에, 두서없이 몇자 줄필 적어봤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Happy New Year!

월례회/Christmas Party



좋은 물건 가져 가세요!

2007 년 마지막 월례회 겸 성탄 party 가 12 월 16 일 주일에 고베드로, 마리아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형제회원 거의 전원과 손님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들뜬 마음을 가라 앉히고 먼저 착실하게 회의, 성무일도, 각 반별 양성 순서를 진행하였습니다. 푸짐한 식사 후 선물 뺑기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모임 - 읍기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읽을수록 쌓이기만 하는 읍기! 이 말씀에 과연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또 읍이 겪는 극단적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지난 12 일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어 보았습니다.

지구형제회 모임



김치와 Cheese

지난 17-19 일 성 프란치스코 지구 형제회 모임이 Orange 의 Marywood 피정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32 개 형제회와 7 개 예비 형제회의 회장, 지구 형제회 임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는 사목적 방문을 위하여 국가 형제회의 영적보조자 Kevin Queally 신부님과 Patrick Mendes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2 박 3 일의 짙어진 일정으로 지구규정 개정, 2008 년 예산 통과 등 모든 업무를 의논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국가형제회 다문화 위원회 임원으로 그 동안 수고하셨던 저희 형제회의 이요셉 형제님과 많은 업무여행에 동행하신 마리아 자매님께 국가형제회의 감사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2 조는 저희 형제회를 “프란치스코의 가족 중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며, 온 세계에 퍼져있고 모든 신자들 그룹에 개방되어 있는 카톨릭 형제회의 **유기적인 단일 조직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저희의 상급 형제회인 성 프란치스코 지구 형제회(St. Francis Regional Fraternity)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가장 상급형제회인 국제 형제회는 95 개의 국가 형제회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국가 형제회에는 30 개의 지구 형제회가 있습니다. 그 중 성 프란치스코 지구 형제회는 남 California 지역의 북쪽 Santa Barbara 에서 남쪽 San Diego 까지 포함하며, 32 개의 단위 형제회(Fraternity)와 7 개의 준비 형제회(Forming Group)와 예비 형제회(Emerging Communit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인형제들로 구성된 7 개의 형제회와 1 개의 예비 형제회가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상 한인, 베트남, 히스페닉, 필리핀, 인도(Syro Malabar) 등 영어권 외의 여러 문화권 형제들로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인 교회 안에 하나의 형제회임을 항상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